

May 28 공동체의 크립토나이트 깨기

• 고린도전서 5:9-13

크립토나이트는 슈퍼맨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1940년대 작가들이 만들어 낸 가상의 물질입니다. 존 비비어는 교회 공동체에도 크립토나이트가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영적 침체와 무기력으로 몰아가는 것, 바로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아간의 죄로 인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전사자를 냈습니다(수 7장).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죄였습니다. 공동체는 아간의 범죄 사실을 몰랐고, 그의 탐욕에 동조하지 않았음에도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와 영적인 침체를 맞게 되었습니다.

죄는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있던 음행 문제를 언급하며 당사자가 아닌 리더들을 질책했습니다(고전 5:1-2). 죄는 누룩 같은 전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고전 5:6). 죄는 공동체를 파괴하며 무력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죄에 대해 민감하며 민첩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죄인’을 받아들이는 것과 ‘죄’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는 죄로부터 누군가를 감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살려 내야 합니다(고전 5:5).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Navy SEALs)은 어떤 부대보다 끈끈한 전우애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늘 전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후방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우들이 뒤를 받쳐 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전신갑주는 전부 앞을 향하여 있습니다(엡 6:10-18). 뒤를 막는 갑옷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전신갑주를 입고 있을 때, 서로를 건강하게 지켜 줄 수 있으며, 이로써 성령의 강력한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나와 공동체에 존재하는
크립토나이트는 무엇입니까?

- ① 영적 무기력과 침체를 가져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② 죄를 민첩히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